다올투자증권 면접

1. 1분 자기소개
2. 질문 중 오래 다닐 사람을 원하는 질문이 많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 하는게 좋습니다.
3.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4. 학점 어떻게 관리했는지
5.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지원 직군의 필요한 역량
7. 취미&특기

| 다올투자증권에 지원하는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자 하는 단계별 목표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 --- |
| 저는 학부 재학 시절 부터 JAVA언어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 더욱더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까 고민을 하며 JAVA실력을 키워 왔고 곧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맥북과 아이폰을 따로 구매하며 IOS 어플리케이션 또한 구현을 해보며 앱개발 전체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실력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 다올투자증권 IT부서에서 Andorid/Ios 서비스 개발 분야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저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앱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 증권관련된 뉴스 또한 크게 관심있어하고 실제로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두가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사를 한다면 배움에 있어 두려워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것이며, 시키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하고 당연히 해야하는 일 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할 것 입니다. 제가 선택한 회사이고 한달 두달 다닐 것이 아니라 평생 다닐 직장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에 있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로 보답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그 이상으로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 이해력을 가질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개발 했고 유지보수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를 가지는 것이 최종적인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지원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통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관련 강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저는 다올투자증권 IOS/ANDROID분야 앱서비스 개발 파트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증권사 특성상 JAVA언어를 주로 이루는 Android 앱개발과 Object-C를 사용하는 IOS앱개발 분야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들의 System ManageMent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맥북 Xcode를 이용하여 Swift, Object-C를 이용한 IOS앱개발 경험을 익혀보았고 Android는 JAVA와 Kotlin을 이용하여 앱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제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며 앱개발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아키텍처 공부 또한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사 특성상 증권 업무를 기능을 개발 또는 유지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증권 용어나 추가로 주식, 경제의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증권분야에 관심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20살 때 부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7년 가까이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수익 또한 내본 경험이 있는 것 또한 다올투자증권 MTS 개발 팀에서 일을 할 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3번의 인턴 경험과 소프트웨 학부 재학시절 수 많은 프로젝트를 겪으며 팀 단위 소통의 중요성과 형상관리기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업무 적응력도 좋아 인턴 경험한 회사 모두에게 더 일해줄 수 없냐고 제의 또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경험 하였던 여러 지식을 다올투자증권에서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협업을 이루는 과정, 본인의 역할과 기여도,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협업의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해 주세요. |
| 졸업 프로젝트로 4명의 클라이언트 팀원들과 Flutter를 이용한 IOS/Android 앱 개발을 경험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거의 마지막까지 “Flutter” 기초도 모르는 개발 팀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팀원도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따라도 해보고 열심히 하였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듯 속도는 나보다 느릴 순 있어도 방향은 나와 같은 곳 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팀원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저는 팀의 리더로 ‘팀 프로젝트’ 에서 파트 분배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완성도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개발 실력이 조금 미약한 그 팀원 에게는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주며, 발표 PPT제작 및 앱 시연 영상 녹화, 앱 내의 더미데이터입력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 또한 요청에 응해주었고 개발 파트 분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조금더 개발을 해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비난이 아닌 호응과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도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속에서 팀원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협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 완만하게 소통하는 방법 또한 배웠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한 일을 대화 스킬을 통해 팀원의 사기와 의욕을 끌어 냈던 것 같습니다. |
|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A팀과 팀원간의 유대를 우선시하는 B팀이 있습니다. 두 팀 중 본인이 배치되어 일하고 싶은 팀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리고 해당 팀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 저는 가시적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팀의 구성원이 되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개발자의 특성상 대부분 프로젝트는 데드라인이 정해져있고 그 기간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한다면 실패한 프로젝트에 가까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IT분야에서는 흔히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된다면 팀원간의 유대감을 키워 내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업무들이 주어지지만 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팀의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과를 중시하고 회사에 중요한 일원이 되는 것이 더욱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팀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가시적 성과를 내는 팀의 팀원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성과를 위해 밤낮 고민하며 정해진 시간안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외의 시간이 됐든 새벽이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팀장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를 위한 개발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업무를 배우고 익혀나간다면 큰 만족을 할 것이고 나중에 팀장이 되더라도 팀원에게 제가 익히고 좋은 성과를 냈던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
| 신입사원인 A사원은 팀 내 직속 선배인 B대리와 함께 신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도중, A사원은 B대리가 작업한 사업성 분석 자료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사원은 이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A사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서술해 주세요. |
| 제가 만약 A사원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회사의 손실을 막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결과가 이득이 아닌 손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것은 사원으로써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회사가 이득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어야하는 것이 회사의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B대리는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A사원인 저에게 실망을 하고 서운해 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B대리에게 프로젝트의 수정을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함에 있어 수정할 만한 사항은 제가 먼저 앞장서고 수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업무에 있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프로젝트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손실을 막아내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도덕성 또한 사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앞에 놓인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회사에 대한 믿음과 유혹을 잡으면 나중에 다 벌로 돌려 받는 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신념을 지키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B대리가 저의 요청에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 높은 직급의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며 손실을 막을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신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